

아이누 족(族)의 옷

김 상 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05년 10월 초, 제자인 나양호 군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가 일본 북해도대학 공학부 응용물리학과 Soft Matter 물리연구실의 조수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연이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나한테 석사학위를 받은 후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동경공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수한 제자다. 그는 지금 액정과 고분자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전기장에 따라 달라지는 유변학적 성질연구(electrorheology)를 한다고 한다.

마침 나는 금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의 일원으로 북해도대학에의 국제학술교류단에 참가하여 북해도대학의 창성과학연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북해도는 2002년 여름 아내가 대수술을 받은 후 기분전환과 원기 회복을 위하여 그해 10월에 아내와 함께 여행사의 프로그램으로 다녀 온 적이 있는데 공기도 맑고 먹거리도 좋아 내게는 아주 인상이 좋은 고장으로 인식되어 있다. 물론 그 때에는 북해도대학을 방문하지 못하여 이번에는 대학도 방문하고 제자도 만나 본다는 두가지 사명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행에 참가했다.

북해도는 1869년 인구 10만의 섬으로 그 명칭이 에조지(蝦夷地)로부터 개칭된 것으로 원래 북해도 개척의 정사(正史)는 번주(藩主) 마즈마에 우치히로(松前氏廣)의 숙부의 육남 가게히로(景廣)가 편집한 신라지기록(新羅之記錄)이라고 하며 (다카구라 신이치(高倉新一)저, 北海道史の 歴史, みやま書房,

1964), 1874년에 임명된 개척사장관(開拓使長官)인 쿠로다 키오타카(黒田清隆)가 일본 최초의 농과대학인 삿포로(札幌, Sapporo)농학교(農學校)를 준비하였고 1876년 미국의 Massachusetts 대학 농과대학장인 William S. Clark 박사를 초청하여 학교 설립을 의뢰하였다(북해도대학 종합박물관, 홋카이도 대학 역사, 김영민). Clark 박사는 삿포로(札幌)농과대학장직을 맡으면서 2명의 제자를 데리고 북해도에 와서 대학의 교육 이념을 “자기수양”, “독립심”과 “불굴의 정신”으로 삼고 농학교 정신을 일본 전역에 알리는데 노력하였다.

그는 북해도에 8개월 밖에 체재하지 않았으나 그 후 그는 제자를 더 보내어 모두 7명이 길게는 11년 동안 북해도에 머물면서 일본 농학교육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특히, Clark 박사는 우리도 옛날 중학교 다닐 때 익히 들었던 “Boys, be ambitious!”란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말은 그가 1877년 미국 Massachusetts 대학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일본을 떠날 때 배웅 나온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은 특히 그의 제자로 반전주의자이고 기독교사상가인 우치무라 칸조에 의하여 일본 전역과 해방 전의 한국 청소년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는데 그 뜻은 “ambitious not for money or for selfish aggrandizement, nor for that evanescent thing which men call fame. Be ambitious for knowledge, for righteousness, and for the uplift of your people”의 message가 담겼다고 한다(William

Smith Clark의 삿포로 농학교 개교 연설문.

이렇게 시작한 삿포로 농학교가 지금은 12개 대학, 14개 대학원 연구과와 1개의 단기대학을 포함한 기간종합대학교인 “북해도대학”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감정 때문에 일본과 일본인을 달갑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금년 “독일 월드컵” 축구경기 때에도 일본과 호주가 맞붙었을 때, 우리는 호주가 이기기를 바라면서 호주를 응원했고 또 호주가 이겼을 때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참고로 하여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추워서 사람이 살기도 힘든 오지인 북해도에 대학을 세울 때에도 일본은 선진국의 대학인을 모셔다가 대학의 기초를 다졌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의 준비 없이 설립했던 과정 등, 과거의 여러 가지 대학 사정을 생각할 때 씩씩한 생각이 든다.

우리가 방문한 이 대학 창성연구센터는 이공계통의 많은 기기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장비가 없는 북해도의 여러 연구단체 및 기관과의 기기공용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었다.

여행기간 중 “아이누 민족박물관”도 관람하였는데 아이누(Ainu)란 말은 원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누 족은 현재 약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화인(和人, 일본 혼슈(本州) 지방인)과 혼혈되어 순수한 아이누 족은 거의 멸종된 듯하다.

80년대 북해도에서 아이누어를 사용하는 아이누 족은 8명밖에 안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은 부랴부랴 아이누 박물관을 개설하고 아이누 소년, 소녀들에게 아이누 말을 가르치도록 독려한 결과 지금은 아이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아이누 족으로 아이누어를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의 사진이 그 박물관에 걸려 있었다.

이런 일들을 돌이켜 보면 일인들이 타민족에 대하여 너무나 혹독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15년

만 더 일본이 점령했다더라면 우리 성(姓)도 빼앗아 고치고, 우리말도 없애 버려 우리 한국 종족은 그 흔적도 없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무서운 상상도 해 본다.

그런데도 아이누 족의 옷은 아직 살아있다. 물론 근래에 와서는 많이 화복화(和服化)한 상태이나 고대의 의복은 특이하다. 1640년대 기록에 의하면 아이누 족도 여느 고대인이나 마찬가지로 수피(獸皮), 어피(魚皮)로 옷을 만든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조선조(1696년) 이지항이 에조지(북해도)에 표착하여 기록한 “표주록(漂舟錄)”이 그 하나로 이에 이 섬 주민이 곰, 여우, 담비 가죽의 옷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北の 生活文庫企劃編輯會議編, 北海道の 衣食と 住まい, 北海道, 1997). 또 수피의(樹皮衣, bark cloth)도 있었다고 한다. 즉, 동물와 식물와의 두 가지가 사용되었는데 동물와는 육지동물, 바다동물, 물고기, 조류 등으로 만든 것으로 이 의류는 주로 동절기나, 설빙 속에서 살기 위한 것이다.

식물와는 수피와와 초피(草皮)로 분류되는데 수피의는 아이누명으로 아투스(attush)로 쓰며 참피나무, 느릅나무 등의 나무의 내피섬유를 실로 만들어 아투스 직기로 천을 짜서 의복으로 한 것이다. Figure 1에 보이는 것이 아투쉬의 일종을 보인 것이다. 초피의는 아이누 말로 레타루페 또는 데타라페 라고 하는 것으로 췌기풀로 실을 만들어 짠 것으로 주로 Sakhalin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췌기풀만으로 천을



Figure 1. 아투스.

짜왔지만 근래에 와서는 면사나 마사를 넣어서 짠 것도 있다. 옷의 모양은 중국풍의 소매가 있는 것도 있고 옷에 부치는 천 조각이나 자수 실은 중국 대륙으로부터 들어 온 것이 많고 옷의 모양이나 색상도 인접한 여러 북방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그 후 일본으로부터 목면을 들여와 아이누 민족 독특한 천을 부친 문양과 자수문양으로 천의 표면을 장식하였는데 그 문양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4가지가 있다(アイヌ 民族博物館, アイヌ 衣服文化, 2001).

색열치문의는 목면의 표면에 백견(白絹), 홍견(紅絹), 청(靑), 다(茶), 자색(紫色) 천을 사용하여 문양을 구성하는 것으로 tape 형으로 천을 좁게 잘라서 의복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 무늬를 넣은 것이다. 북해도의 태평양 연안에서 주로 만들어 졌다고 하

는데 그 무늬는 파도모양, 물고기나 곰의 형체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2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다.

다음 흑열치문의는 목면 의복에 흑목면이나 감(紺)목면의 천을 잘라 넣어 만든 의복이다. 잘라 넣은 문양은 대개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선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포절발문의는 백색 목면의에 문양은 잘라 넣은 형을 부친 것으로 색지를 2번, 4번 짚어서 꽃 모양을 만들고 이것을 잘라서 부친 것 같은 것으로 Figure 4에 보이는 것이다.

끝으로 자수의는 흑색 목면의에 직접 자수한 의복으로 아이누 전통의 무늬를 넣은 것으로 Figure 5에 보이는 것이다.

어느 문화 예술품이나 고대에는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조형되었는데 예를 들어 동굴 속



Figure 2. 색열치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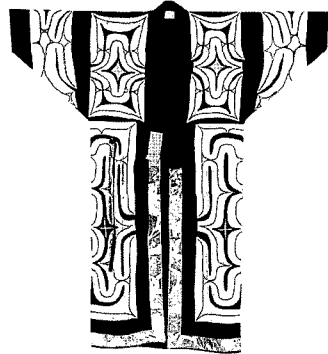


Figure 4. 백포절발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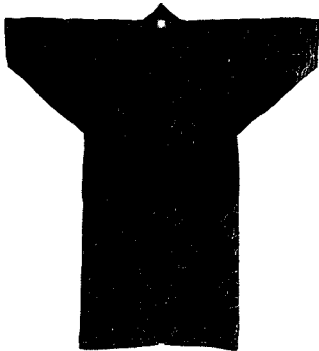


Figure 3. 흑열치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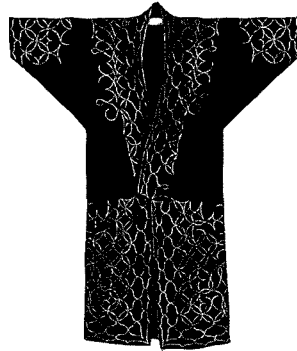


Figure 5. 자수의.

에 조각된 불상도 화강암이 많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석굴암 같은 예술품을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중국 둔황(敦煌)의 수천(數千)의 막고굴(莫高窟) 불상은 모두 그 지역에서 흔한 점토로 불상을 빚고 채색한 것으로 미루어, 북해도 아이누 족의 옷은 이 지역의 산물인 수피를 실로 하고 그 자연환경에서 보는 풍경, 동물, 식물 등의 모습으로 무늬를 낸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거나 그 지역의 자연 환경, 기후 등에 따라 그 곳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특성이 형성되며 또 그 인간에 의하여 문화 예술품이 창조된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신기한 자연환경과 조형된 “아름다움”도 발견하고 이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때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 해외여행의 묘미이다. 나아가 거기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 발전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한다.

저자 프로필



김 상 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한국공학한림원 명예회원
e-mail: kimsangy35@yahoo.co.kr